

설정되면서, 절대적인 보존사업은 그대로 설정 시행하되, 생활이 함께하는 보존을 위한 지혜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건축·도시설계 전문가, 주민들의 의견수렴으로 모아지고 있다. 즉, 그 지역의 고유한 역사·풍토·문화적 배경에 맞는 실생활을 전제로 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고정된 환경요소(Fixed Elements)로서의 양식(생활+건축)은 지키되, 재료나 부속물은 변경 가능하게 한다든지, 원형과 변형의 범위를 분명하게 결정하여 준수하되 주민의 의사가 반영된 디자인 가이드라인(Design Guideline)의 몇몇 유형을 마련하여 선택시행하게 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5. 끝으로

본 특집의 대상지역은 전술한 바와 같이 삼국시대에서부터 근대, 현대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의 문화, 행정, 교육의 중심지이다.

상위계획인 국토개발계획에서부터 지역, 도시계획에 따른 그 도시의 잠재력 개발을 통한 자생력 확보를 위해서는 도시산업구조의 새로운 개편이 요망된다. 문화관광자원의 물성적인 것은 물론이고 이 지역의 비가시적인 역사·의식, 삶, 시대정신은 이 지역의 우세요소이면서 도시환경 측면에서 볼 때 고정요소(Fixed Elements)이다. 도시기본구조, 문화유적, 지하구조체(Infra System) 등의 고정요소의 골격은 그대로 유지 보존하되, 현대화에 따른 생활의 편의성 해결을 위한 반고정, 비고정 요소는 가변적 처리에 의해서 생활양식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이 지역은 옛 도읍 형성과정에서도 작용하였듯이 산, 강 등의 자연요소에 의해 도시의 골격과 규모가 한정되었으므로 새로운 도시구조, 산업체계형성을 위해서는 강을 경계로 한 미개발지역에 신도시(Newtown)조성을 하되 도시산업구조에 맞는 적정규모의 토지이용계획이 필요하며, 자생력확보를 위해서 관광자원의 점-선-면적인 위계를 갖춘 연계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공업지역에 입주하는 산업체는 시각적 위해요소, 공기오염 등의 공해요인이 적은 산업체의 선별이 필요하다. 문화경관요소는 고립된 분리개념이 아닌 쉽게 접근하여 체험할 수 있도록 하되, 새로운 인공환경건설(계획)시에 그 형태, 규모(건폐율, 용적률, 층수)와 색상, 재료(색상, 질감)의 가이드라인(Guideline)이 필요하고, 도시가로공간 중 주요지점에서 연결되는 통경선(View Corridor) 확보를 위한 도시경관광학적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의 건전한 문화의식이 고양될 때에 모든 것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평범한 사실의 실천이다.

백제문화권에 관한 소고(小考)

A Study on Paekche Cultural Region

김억수 /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장
by Kim Euk-Su

1. 머리말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듯이 19세기와 20세가 경제위주의 시대였다면 곧 다가올 21세기는 문화나 정보의 시대가 될 것이다. 경제위주가 되었던, 아니면 정보위주가 되었던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의 정신 속에 문화의식이 깃들어 있어야만 물질적 풍요와 더불어 정신적인 성숙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문화적 주체성을 바탕으로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문화적 역량을 키우는 작업은 경제력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라 생각된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전통문화의 하나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백제문화권을 조명하는 것은 매우 가치있는 일이다.

백제문화권이라는 말은 시간적으로는 백제가 개국하여 멸망할 때까지를 말하는 것이며, 공간적으로는 백제의 문화가 영향을 미친 영역을 말한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백제문화권이라는 용어는 명확한 개념을 정리하기가 쉽지 않다. 왜냐하면 시간에 따라 영역의 범위가 일정하지 않았고 문화적으로도 백제의 범위 속에 포함되는 것이 달랐으며, 또한 백제가 멸망한 후라도 백제의 문화전통이 남아 있어서 그 일정한 한계를 분명히 가릴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백제문화권이라는 용어는 1970년대 초반 경주를 집중적으로 개발하자 상대적으로 개발이 늦은 호남지방에서 개발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비등하게 되자 신라문화권에 대한 상대적인 용어로 막연하게 사용한 것¹⁾으로 추정된다.

본고(本稿)에서는 백제의 역사·문화·정치·종교·사상·생활 등 기존의 연구 성과 및 업적을 참고하여, 백제사 연구의 현황과 지금까지의 백제문화권 개발상황을 고찰(考察)해 봄으로써 백제문화권의 현재적(現代的) 의미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백제사(百濟史) 연구의 현황

‘역사’라는 말은 「과거에 일어난 일, 그리고 그 것에 대한 기록」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역사거나

1) 李康承, 「백제문화권 개발의 현황과 과제」 《열린총남》 제3권 제4호, 충남발전연구원, 1997.

역사학자들은 이 과거의 사실들을 기록하여 당대(當代)의 사람들에게 그 진실을 올바르게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백제사(百濟史) 연구는 최근까지 남한의 신라사(新羅史) 연구나 북한의 고구려사(高句麗史) 연구에 비해 활발하지 못하였던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것은 역사적인 기록물은 대부분 「승자(勝者)편의 자전적(自傳的)인 기록」이라고 말하여 지듯이, 패망한 백제국 자체가 남긴 정사적(正史的) 사료가 거의 상실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백제에 관한 현존 문헌의 한계와 일본인 연구자들에 의한 고고(考古)·미술사적(美術史的) 발굴 위주의 백제사 연구는 상당히 편향적인 연구 성과를 남기게 되었다.²⁾

근대적인 연구방법에 의한 백제사에 대한 연구는 신라사나 고구려사에 대한 연구와 마찬가지로 일제시대에 일본인들에 의해 먼저 시도되었다. 그런데 초기에 연구를 진행한 일본인 학자들이 백제사에 대한 잘못된 선입관으로 백제에 대해서 기록한 《삼국사기》 초기 기록을 특별한 이유없이 불신하였고, 그들의 백제연구가 순수한 학술적인 목적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정치적 의도에서 출발하였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일본문헌(日本書紀) 위주의 역사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처음부터 왜곡된 백제사상(百濟史像)은 정립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들의 이러한 입장을 가장 잘 대변해 주는 것이 소위 「임나일본설(任那日本說)」인데, 이것은 곧 「백제사(百濟史)라는 것은 임나일본부(任那日本府)의 지배하에 타율적으로 유지된 역사」라는 것이다. 이러한 그들의 왜곡된 백제사상(百濟史像)을 일제시대 초기에 형성된 이후³⁾ 약간씩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오늘날 까지도 일본인 학자들의 백제사 인식에 대한 기준 틀로 작용하고 있다.

일본인들이 이렇게 왜곡된 백제사상을 만들어 낸 것은, 《日本書紀》와 같은 일본문헌의 적극적인 해석과는 반대로 삼국사기 초기 기록에 대한 불신과 부정에서 출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내 학자들에 의해 백제사에 대한 연구가 심화되면서 이러한 잘못된 백제사상은 점차 바로 잡혀가고 있는 중이다.

해방 후 우리 사학계에 주어진 과제는 크게 두 가지였다. 하나는 일본인 학자들에 의해 의도적으로 왜곡된 백제의 역사를 시정하는 일이었고, 다른 하나는 이를 바탕으로 올바른 백제사상을 새롭게 정립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1967년, 김원룡(金元龍) 박사의 경우 고고학적(考古學的)인 관점, 즉 서울시 강동구 풍납동에 남아있는 풍납동 토성의 발굴 결과를 토대로 종래 일본인 학자들이 주장해 온 것과는 달리 삼국사기 초기 기록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제시⁴⁾ 함으로써, 백제 초기사 연구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견해는 이때까지 일본인 학자들이 규정해 놓은 틀 안에서 백제사를 연구해 오던 우리 학계

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으며, 동시에 일본인 학자들의 백제사에 대한 잘못된 편견에 일침을 가하는 것이었다. 특히 1971년 공주에서 무녕왕릉(武寧王陵)이 발굴되고, 거기에서 출토된 지석(誌石)의 내용이 삼국사기의 기록과 합치됨으로써, 삼국사기의 기록은 이제 오히려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천관우(千寬宇) 선생과 이종욱(李鍾旭) 박사의 초기 백제사에 대한 재검토와 새로운 백제사상의 정립⁵⁾은 이러한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한 삼국사기 초기 기록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을 통하여 얻어진 수확으로 볼 수 있다.

이렇듯 고고학과 문헌사학적 입장에서 삼국사기 초기 기록에 대한 신빙성이 입증됨에 따라 종래 일제 황국사관(皇國史觀)의 관념적 무기였던 「임나일본부(任那日本府)」 자체의 허구성도 밝혀지게 되었다. 즉 「임나일본부」란 6세기경 가야지방(伽耶地方)-진주(晉州)일대에 파견된 백제의 군사령부(軍司令部)와 같은 성격의 기구였다는 주장⁶⁾과 「임나일본부(任那日本府)」란 백제가 구례산(久禮山) 부근에 설치한 기관으로 보고, 그곳에 파견된 관인(官人)이 아마토(大和)정권의 씨성(氏姓)을 갖고 있던 백제 관료이었기 때문에 일본부(日本府)가 되었다는 주장 등이 그것이다⁷⁾.

특히, 백제사 연구는 1971년 무녕왕릉의 발굴로 백제고분 연구의 체계적 정립과 여기에서 출토된 유물을 통하여 삼국시대 여러 유적에서 출토된 유물의 편년(編年)을 가능케 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백제문화의 조사와 연구에 획기적인 변화를 초래하는 결과가 되었다. 또한 기존의 고고학 미술사 위주의 연구성과에 힘입어 백제의 고분(古墳) 뿐만 아니라 토기, 성곽, 사지(寺地), 불상 등의 연구외에도 백제의 언어, 가요(歌謠), 불교, 미륵사상(彌勒思想) 등 문화면에서도 많은 성과가 기록되었다.

이와같이 해방 후 전개된 백제사에 대한 연구 결과, 일본인 학자들에 의해 연구·축적된 백제사상이 왜곡된 사실이었음이 밝혀졌고, 아울러 보다 올바른 백제사상을 정립하기 위한 연구도 부단히 계속되고 있다. 그 결과, 백제의 건국 신화 재해석⁸⁾·백제의 국가형성 문제⁹⁾·백제 성립의 역사적 배경¹⁰⁾·백제의 정치¹¹⁾ 등이 체계적으로 밝혀지게 되었다. 또한, 백제의 도읍지가 한성(漢城)에서 웅진(熊津)으로, 다시 사비(泗)로 천도(遷都)됨에 따라 정치체제의 핵심적인 문제라고

2) 申濬植, 《百濟史 研究의 現況과 課題》 《열린총남》 제3권 제4호, 충남발전 연구원, 1997.
 3) 徐程錕, 《백제문화 연구와 개발의 현주소》 《열린총남》 제3권 제4호, 충남발전연구원, 1977.
 4) 金元龍, 《三國時代開始에 關한 一考察》, 《東西文化》 7輯, 1967.
 5) 千寬宇, 《三韓의 國家形成(下)》 《韓國學報》 3輯, 1976.
 6) 李鍾旭, 《百濟初期史 研究史料의 性格》 《百濟研究》 17輯, 忠南大學校 百濟研究所, 1986.
 7) 千寬宇, 《復元加耶史(下)》 《文學과 知覺》 9-1, 1977.
 8) 申濬植, 앞의 책 참조.
 9) 盧重國, 《百濟建國神話의 原型과 成立背景》 《百濟史의 理解》, 학연문화사, 1991.
 10) 金元龍, 《百濟建國神話의 復元試圖》 《國史館論叢》 13輯, 1990.
 11) 李基東, 《백제의 건국》 《백제의 역사》, 공주대학교 百濟文化研究所, 1995.
 12) 金元龍, 《百濟建國地로서의 漢江下流地域》 《百濟文化》 7.8合輯, 공주대학교 百濟文化研究所, 1975.
 13) 盧重國, 《백제의 정치》 《백제의 역사》, 공주대학교 百濟文化研究所, 1995.

할 수 있는 웅진시대의 지배세력과 사비시대의 지배세력의 실제¹²⁾가 밝혀지게 되었다. 이제 백제사에 대한 연구는 위에 서술한 제 분야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백제의 대외관계¹³⁾ 및 백제시대의 사상에 대한 연구에까지 미치고 있다.

그리고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논문집: 「백제문화」), 충남대학교의 백제연구소(「백제연구」), 그리고 원광대학교의 마한(馬韓)·백제문화연구소(「마한·백제문화」)의 지속적인 연구와 국내·외의 학술활동은 백제사 연구의 촉진제가 되고 있다. 또한, 백제문화개발위원회의 재정적 지원과 연구·발굴사업은 미진한 백제사 연구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게 되었다. 특히 이들 연구소는 정기·비정기적인 국제학술 세미나와 관계 연구자의 발굴지원을 통하여 백제의 역사와 그 문화의 성격을 국제적 안목에서 추구하고 있음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백제사의 체계적인 정리를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여러 가지 미해결의 과제들—백제 초기 도성(都城)의 위치·왕위계보(王位系譜)·백제의 요서영유(遼西領有)·담로제(擔盧制)와 방(方)군(郡)면(勉)체제에 대한 견해 차이·익산별도문제(益山別都問題)·백강(白江) 및 주유성(周留城)의 위치, 그리고 고고학 연구 성과와 백제 문헌과의 연계문제 등—이 있다. 이러한 과제들은 학계에서 아직도 이견(異見)과 이설(異說)이 분분하지만, 백제사의 체계적인 정리를 위해서, 그리고 백제문화권의 설정과 개발방향을 위해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보다 심층적이고 다양한 연구가 요망되어진다.

3. 백제문화권 개발 현황

우리 한민족이 한 지역에서 몇 천·만년을 끊임없이 살아 내려왔다는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며, 문화유적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역사와 삶의 내용이 풍부하다는 것을 말해 준다. 주지하듯이 삼국시대의 문화는 우리 민족문화의 틀이 형성되던 시기의 문화다. 삼국시대를 통하여 우리 민족문화의 공간과 범위가 정해지고, 이어서 통일신라와 고려·조선 등 통일왕조가 이어지면서 다른 민족과 구별되는 우리 민족의 고유한 민족문화가 형성되었던 것이다. 삼국(三國) 중의 백제문화는 고구려·신라문화와 정립(鼎立)한 우리의 민족문화를 형성한 귀중한 축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도 백제문화에 대한 탐구는 백제사 연구와 마찬가지로 남한의 신라문화, 북한의 고구려문화 탐색에 비해 상대적으로 활발하지 못하였던 것은 사실이다.

현재적 의미의 온전한 우리의 민족문화는 고구

〈표1〉 지역별 백제문화권 개발사업내용(1987~1996)

구분	서울	공주	부여	익산	계
87년	石村洞고분·芳夷洞고분·蒙村토성·岩寺洞집자리·風納토성(5건)	公山城·案山里고분·中嶽壇·上莘里당간지주·麻谷寺 대웅전 및 대광보전·청양삼존석불(6건)	부소산성·정림사지·능산리고분·長嶺里삼층석탑 무량사극락전·雙北里窟址 성지사지(7건)	미륵사지·익산토성·東古里石佛·김제벽골제(4건)	22건
88년	암사동 집자리·방이동·석촌동고분·몽촌토성(4건)	공산성·송산리고분·갑사(32건)	부소산성·정림사지·능산리고분·백제왕궁지(4건)	미륵사지(1건)	12건
89년	—	공산성·송산리고분·新官洞고분·水源寺址·長水源寺址 長谷寺(5건)	부소산성·정림사지·능산리고분·부여나성·은산별신제(5건)	미륵사·왕궁평·미륵산성(3건)	13건
90년	—	공산성·송산리고분·斑竹洞당간지주·공주加尺里석탑·공주東院里석탑·청양西亭里석탑·南穴寺址 九龍寺址(8건)	부소산성·정림사지·능산리고분·부여나성·공남지·성주사지·大鳥寺석불·東南里寺址(8건)	미륵사지·왕궁평유적·미륵산성(3건)	19건
91년	—	공산성·송산리고분·수원사지·石壯里구석기유적(4건)	부소산성·정림사지·부여나성·공남지·능산리고분·興山城 聖住寺址 龍井里寺址·草村支石臺·동남리사지(10건)	미륵사지·왕궁평유적·帝釋寺址·저토성·胎峰寺址·石佛寺址(6건)	20건
92년	—	공산성·송산리고분·수원사지·석장리·斑竹洞당간지주·남혈사지·구룡사지·서혈사·청양서정리석탑(9건)	부소산성·정림사지·부여나성·공남지·성흥산성·성주사지·능산리고분·松菊리신사유적·동남리사지·天寶寺址(10건)	미륵사지·왕궁평유적·미륵산성·익산쌍릉·제석사지(5건)	24건
93년	—	공산성·石壯里구석기유적·반죽동당간지주·구룡사지(6건)	부소산성·정림사지·부여나성·공남지·성흥산성·성주사지·송국리신사유적·동남리사지(8건)	미륵사지·왕궁평유적(2건)	16건
94년	—	공산성·석장리구석기유적·송산리고분·東城王陵址·斑滿당간지주·구룡사지(6건)	부소산성·정림사지·부여나성·공남지·성흥산성·성주사지·송국리신사유적·백제역사재현단지(8건)	미륵사지·왕궁평유적(2건)	16건
95년	—	공산성·석장리구석기유적·송산리고분·동성왕릉지·반죽동당간지주·구룡사지(6건)	부소산성·정림사지·부여나성·공남지·성흥산성·성주사지·송국리신사유적(7건)	미륵사지·왕궁평리요총석탑(22건)	15건
96년	—	공산성·석장리구석기유적·반죽동당간지주·구룡사지·(6건)	부소산성·부여나성·공남지·성흥산성·성주사지·송국리신사유적·왕흥사지·성주사지(7건)	미륵사지·왕궁평리요총석탑(22건)	15건
계	9건	59건	74건	30건	172건

자료: 문화재관리국, 文化財管理年報 1-10호, 1988~199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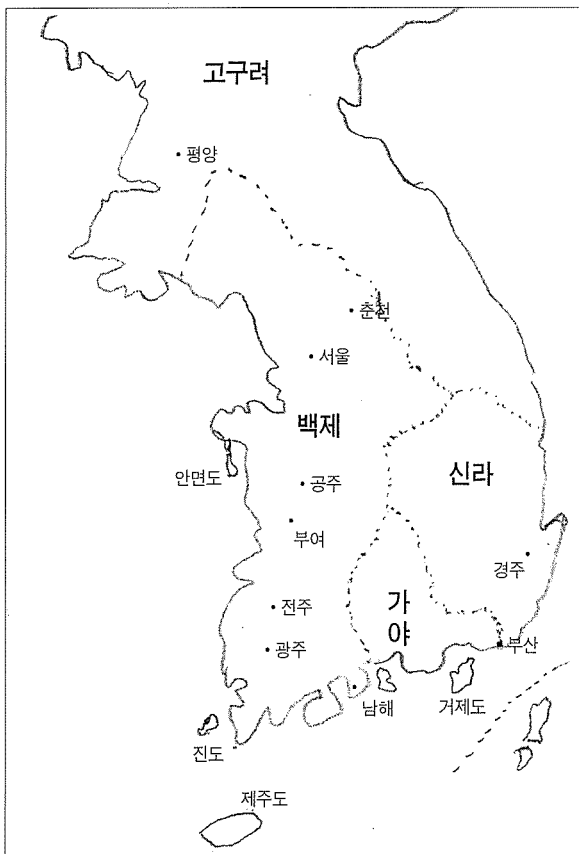
12) 李基白, 《龜津時代 百濟의 貴族勢力》《百濟研究》9輯, 忠南大學校 百濟文化研究所, 1978.
13) 俞元載, 《백제의 대외관계》《백제의 역사》, 公州大學校 百濟文化研究所, 1995.
姜孟山, 《웅진시대의 백제와 중국》《百濟文化》, 公州大學校 百濟文化研究所, 1997.

려·신라문화 뿐만 아니라 백제문화를 통해서도 함께 계승·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최근 활발하게 일기 시작한 백제문화권 개발은, 진정한 민족문화의 원형을 찾고, 그를 통해 새로운 민족문화를 창달하기 위한 계기를 마련한다¹⁴⁾는 점에서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1) 백제문화권 개발사업 착수

백제문화권의 본격적인 개발사업은 1977년부터 시행되었다. 즉 정부는 경주 중심의 신라문화권 개발이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제1차 문화재 보수 계획을 세우고 이제까지 산발적으로 시행해 오던 보수사업을 지역의 문화권으로 묶고, 주제별로 정리하여 사업을 계획¹⁵⁾하였다.

그러나 백제문화권의 개발사업은 신라문화권 개발과는 달리 백제문화권의 범위, 개발사업의 방향 등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채 출발하였다. 즉 백제는 신라와는 달리 지역이나 시대적인 한계가 뚜렷하지도 못하고, 또 역사와 문화 배경에서 차이점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신라문화권 개발사업의 마스터플랜을 그대로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에 적용하였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을 파생시켰다. 원래 백제문화권 개발 계획은 서울, 공주, 부여, 익산 등 4개 지역을 중심으로 79~89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65개의 문화재를 정비하려는 계획을 세웠으나, 86 서울아시안게임과 88 서울올림픽이라는 국



전성기의 백제 강역 추정도

제행사를 치루기 위하여 서울의 문화재를 정비할 필요성이 대두하였다. 따라서 정부는 서울지역에 대해서는 1985년 별도로 「고도민족문화유적(古都民族文化遺蹟) 종합복원계획」을 세우고, 서울지역 위주의 조사와 정비사업을 벌였다. 이런 이유로 공주 부여 익산 등지의 개발 사업은, 이미 계획된 조사, 정비 그리고 복원 등의 작업이 이루어 질 수 없었다. 그러다가 아시안게임과 올림픽이 끝나고 난 후부터는, 반대로 공주 부여 익산 등지의 백제 유적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문화권 개발사업이 추진되었다(표1 참조). 즉 백제문화권은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공주 부여 익산 등지로 범위가 좁혀지고 미땅히 포함되어야 할 서울지역은 제외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예는 단적이기는 하지만 그동안 추진되어온 백제문화권의 개발사업이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짐작케 해 주는 것이다.

2)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의 내용

정부는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1991년 백제문화권 종합개발 타당성 조사를 거친 후, 1993년 6월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의 공주 부여를 포함한 몇 지역을 특정지역으로 지정하였다. 뒤 이어 1994년 10월, 백제문화권 종합개발계획이 확정되어 1995년부터 2001년까지 7개년 계획으로 1조 5000여 억원의 투자 계획도 발표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계획은 백제문화권역의 주민들에게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백제문화권에 거는 우리 지역민들의 희망찬 기대와는 달리, 그 동안의 경과와 경험 등으로 우려 또한 없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백제 문화권 개발이라는 정부의 공약은 이미 1978년에 있었던 것이나, 여러 차례의 공언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가시적 성과나 결과가 빈약하였기 때문이다. 아울러 투자계획 예산도, 대부분 지방비와 민자유치를 계획하고 있고, 국비 투입 계획은 전체 예산의 18% 정도에 불과하여 투자재원의 확보문제가 과제로 남아있다. 더구나 지금까지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의 내용과 추진과정을 살펴 보면, 대부분이 유적 주변의 토지(사유지)매입과 유적 주변을 정화, 정비하는 일이 대부분이었고, 정작 문화재 정비와 개발에는 그리 많은 예산을 투자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백제문화권 개발과는 거리가 먼 부분에 예산을 사용하고 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이처럼 백제문화권의 개발사업은 사업이 실시된 지 2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백제문화권 전반에 대한 종합 개발계획이나, 개개유적의 활용방안도 강구되어 있지 않은 것에 다름 아니다.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공주의 공산성을 어떻게 정비, 복원할 것인지, 또는 부여의 능산리 고분군을 어떻게 활용

14) 徐程錫, 앞의 책 참조.
15) 李康承, 앞의 책 참조.

하며, 정립사지는 몇 년에 걸쳐 어떤 방법으로 정비할 것인가 하는 뚜렷한 방침이 결여되어 있다. 물론 발굴결과에 따라 유적의 정비 방침이 결정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으나 백제 문화권을 포괄적으로 정비하는 기본계획을 먼저 세운다면 지금 보다는 훨씬 효과적인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신라문화권의 문화유적이 경주에 집중해 있는 반면, 백제문화권의 문화유적은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어, 문화 유적의 집중성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인데, 이는 신라와 백제의 역사적 차이를 반영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라문화권 개발사업이 경주라는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고 하여, 백제 문화권 개발사업 역시 공주 부여 등과 같이 당시의 수도 중심으로 개발사업을 진행시키기 보다는 백제유적이 분포하는 백제문화권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백제문화권을 몇 개의 지역으로 나누어 어떻게 연계시켜 개발할 것인가 하는 새로운 종합개발 계획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 여기에는 문화재를 중심으로 관광개발이나 지역개발을 위한 교통이나 환경 등 여러 부문에 걸쳐 신중하고 종합적인 검토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4. 맺음말

백제사연구는, 초기에 연구를 진행한 일본인 학자들의 백제사에 대한 잘못된 선입관과 그들의 백제사연구가 순수한 학술적인 목적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정치적 의도에서 출발하였기 때문에 처음부터 왜곡된 백제사상을 정립하게 되었다.

그러나 해방 후, 국내 학자들의 백제사에 대한 연구가 심화되면서, 일본 학자들에 의해 의도적으로 왜곡된 백제의 역사가 시정되고, 아울러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백제사 인식체계가 수립되어 가고 있다.

주지하고 있듯이 백제가 치열한 전쟁에 의하여 멸망되었던 역사적 조건으로 말미암아 백제는 신라에 비해 처음부터 문헌의 한계와 문화유적의 집중성이 떨어진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부족한 문헌으로 말미암아 파생되는 백제사의 공백은 문화사를 주축으로 재구성되어야 하는 시점에 도달하게 되었다. 이런점에서, 백제사 연구의 현재적 의미로는 적극적인 사료발굴(예:「금석문」과 같은 기록물)과 병행하여, 문헌과 고고학 미술사의 적극적인 연결과 상호보완이 요구된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미해결의 과제에 대한 다양한 견해는, 백제사의 체계적인 정리를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큰 과제로서, 각기의 이해관계를 떠나 지속적으로 공동연구와 토론을 거쳐 바람직한 결론을 도출해 내어야 할 것이다. 백제문화권 개발은, 백제문화의 내용을 입증하는 당시의 문화내용을 잘 보존함으로써 우리 민족문화 창달의 기초를 다지는 것과 관광사업을 내포한 지역

개발이라는 의미¹⁶⁾를 내포하고 있어, 백제문화권 개발에 대한 기대는 지역개발과 문화 발전을 염원하는 관계지역민들의 오랜 숙원이기도 하다.

그런데 위의 보전과 개발이라는 두 가지 측면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서로 상반되거나 충돌하기 쉬운 부분이다. 현재 공주시 웅진동(熊津洞) 금강변 정지산(艇止山) 자락에 건설중인 백제 큰 길과 교량은 관광 수요에 의한 경제성의 증대와 지역개발로 연결되는 부수적 효과는 파생된다 하더라도, 백제의 고도(古都)인 공주의 경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문화재 보존에 역행하는 개발사업의 한 예라 할 수 있다.

물론 개발과 보존을 어떻게 조화시키는가 하는 문제는 지금까지도 명쾌한 답안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문화재는 한 번 잘못 손을 대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일회적인 자료이므로 서둘러서 오류를 범하기 보다는 신중하게 자료가 확보된 후에 개발하는 일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점에서 백제문화권을 온전히 개발하기 위해서는,

첫째, 정부는 이 분야의 전문가와 충분한 심의 검토를 거쳐 먼저 개발사업의 범위와 방향 등 종합개발계획이 확고하게 정립되어야 한다.

둘째, 백제문화권은 서울, 충청(공주 부여 서산 예산 홍성 등), 익산 등에 광역적으로 분포되어 있어, 이들을 종합적으로 연계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개별 자원으로서는 관광가치를 충분히 높이지 못하고 있으므로 체계적인 연계성이 요구된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백제문화권을 몇 개의 지역으로 나누어 어떻게 연계시켜 개발할 것인가 하는 계획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 여기에는 문화재를 중심으로 관광개발이나 지역개발을 위한 교통이나 환경 등 여러가지 부문에 걸쳐 신중하고 종합적인 검토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백제문화자원을 관광사업화하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투자재원을 필요로 하는 반면, 이러한 사업은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투자재원의 수익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국비 지원에 비해 과도하게 투자비율을 점유하고 있는 민자유치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넷째, 백제문화권의 그 동안의 발굴 문화재는 상당히 많으나 신라문화권과 비교하여 널리 알려진 대규모의 문화재가 부족함으로, 발굴과 함께 정비 복원에 중점을 두되, 백제사 내지는 백제문화 실제 규명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왜냐하면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은 어디까지나 백제문화의 재현이 본래의 의도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문화재 사적 등 백제문화 유산에 대한 충실한 조사 연구 그리고 보존 등의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16) 尹龍燾, <백제문화권 개발과 충남 발전> (열린총남) 창간호, 충남발전연구원, 1995.